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뜻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어우러져  
하나 되는 감정,  
일체감은 행복의  
척도로도 사용된다.



거리감 없이 우리(Us)! :  
일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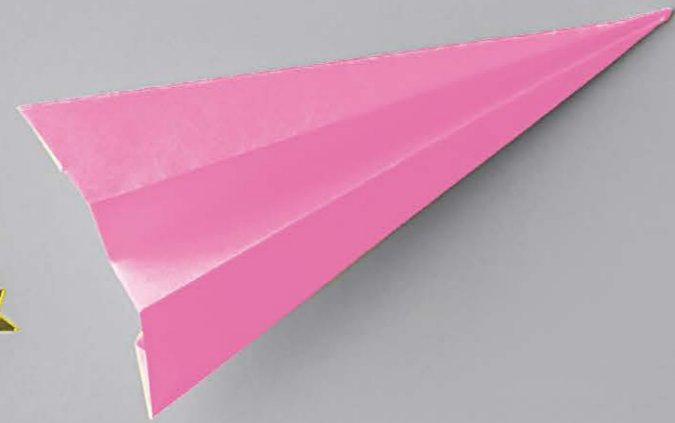
Omm

KTR & U

# GOOD BYE

## 반갑 DAY

2017년 창간해 KTR의 이야기꾼 역할을 톡톡히 한 <반갑Day>가 2023년 봄, 임직원과 가족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KTR&U>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KTR&U> 제호는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KTR 직원들의 감동과 성장 스토리를 정감 있게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 HELLO

## KTR&U!

<KTR&U>는 U 너와 Us 우리의 Unity 일체감으로 하나 된 KTR의 꿈을 의미

KTR&U, Corporate Identity



KTR 임직원과 가족이 서로를 포용하는 의미로 모난 데 없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곡선을 통해 거리감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KTR의 바르고 곧은 투명성과 임직원들이 화합, 소통하며 희망차게 나아가는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K-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No.1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모두가 함께 하나 된 자부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지속 가능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 <반갑Day> Archive



### <KTR&U> Start



"KTR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 KTR 소식지 <KTR&U>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KTR&U>는 정겹고 따뜻한 이야기로 잊지 못할 감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KTR&U> 홍보팀

# CONTENTS

2023 SPRING  
VOL. 25

## KTR + PEOPLE



### KTR Issue

GOOD BYE, 반갑day!  
HELLO, KTR&U!

02

### Editor's Note

<KTR&U>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

06

### 2023년 봄호(통권 25호)

발행일  
2023년 3월 24일

발행인  
김현철

발행처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Tel. 02-2164-0087  
Fax. 02-2634-0016  
www.ktr.or.kr

기획·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인쇄  
(주)영은문화

<KTR&U>에 게재된 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동하는 사진관

KTR, 누가 누가 더 가깝나!

08

### 팀 빌딩 프로젝트

"하나가 될 때, 우리는 No.1"

12

### 우리가족 오디오북

민서, 하준, 하울이가 함께라면  
늑대는 무섭지 않아요~

16

### 찾아가는 클래스

하나, 둘, 셋, 짠! 우리 사이가 진짜 마술!

20

### 커버 스토리

너를 위한 우리들의 포메이션, 'U'!

24

## KTR + FOCUS



### 테마 인문학

서로 나누며 한데 어우러져  
- 게임에게서 배우는 일체감

26

### 만나고 싶었습니다

28년, 원팀으로  
한길을 달려온 밴드 크라이닝!

28

### 미래적 참견시점

챗GPT 시대,  
일인군단의 시대!

32

### 호기심 백과사전

8cm 구두 굽이 만든 관계의 틈을  
좁혀나가는 현대인들

36

## KTR + CULTURE



### 마음 처방전

모욕을 견디지 않으면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법

40

### 이상한 과학실

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좋을까?

44

### 일상 속의 여유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깝게 마음 편히 쉬기

46

### 우체통

50

### 나만의 컬러링

51

# KTR & U

KTR과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



KTR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이번에 KTR의 소식지가 <반갑Day>에서 <KTR&U> 새 이름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발간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원 공모를 통해 직원들이 가장 선호한 이름인 <KTR&U>로 선정했습니다.

<KTR&U>는 'KTR'과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KTR&U>를 소통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KTR&U>가 우리 KTR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KTR&U>가 많은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KTR&U> 다음 호에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여, 우리 직원들이 KTR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3월의 봄날처럼 따뜻하고 새로운 KTR을 만들어 갑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김현철

# KTR+PEOPLE

KTR 임직원과 가족들이 채워가는 섹션입니다.  
웃음 가득한 소통의 시간이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려 나갑니다.



08

이동하는 사진관  
KTR, 누가 누가  
더 가깝나!

12

팀 빌딩 프로젝트  
하나가 될 때,  
우리는 No.1

16

우리가족 오디오북  
민서, 하준, 하율이가 함께라면  
누대는 무섭지 않아요~

20

찾아가는 클래스  
하나, 둘, 셋, 짠!  
우리 사이가 진짜 마술!

24

커버 스토리  
너를 위한  
우리들의 포메이션, 'U'!



## KTR, 누가 누가 더 가깝나!

**Omm, 거리감 없이 우리(Us)!**

인류의 가장 큰 힘은 단합에 있다. 하나가 될 때, 유대는 회복되고 성공은 가까워진다. 마음과 힘을 한데 뭉쳐, 끝까지 함께 우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Omm, 거리감 없이 우리(Us)'라고 부른다. KTR, 누가 누가 더 가깝나! 일체감 상승, 인생 네 컷 이벤트 현장은 천방지축이었지만 눈빛, 몸짓, 웃음은 하나 된 축제였다.

### 너와 사진을 찍으니, 오늘 우리 더 멋있어!

봄기운이 싹트는 2월 과천 본관 로비, 화기에애한 웃음꽃 소리 사이로 “찰칵” 셔터 소리가 들린다. 둘 혹은 네다섯 명의 동료들이 바글바글 귀엽고 예쁜 소품들을 하나둘 착용하며, 포토 부스로 들어간다. “좁지 않아? 좁기는 뭐가 좁아! 어서 드루와!” 선후배가 어서 함께하자고 소리 높이며 우르르 달려와 ‘Omm, 거리감 없이 우리(Us)’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중이다. 포토 부스를 처음 접한 동료가 조작법에 서툴러 어려워할 때는 동료가 다가가 사용법도 친절히 알려준다. 건설재료센터 최준호 수석연구원은 오늘 이 순간이 뜻깊다. 가벼운 마음으로 포토 부스를 찾았지만, 동료들과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사진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인생의 한순간을 건설재료센터 동료들과 남길 수 있어 기쁘네요. 동료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 순간을 인생의 한순간으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건설재료센터 파이팅!” 최신 유행 흐름을 따라 ‘인생 네 컷’ 이벤트가 열려 매우 흥속하다는 표면분석센터 임찬우 선임연구원과 고객지원센터 김승연 선임연구원

은 동료들과 일체감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새롭다며 들떠있다. 쭈뼛쭈뼛 부스를 지나치던 사람들도 활기차게 사진을 찍는 동료들의 모습을 엿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아, 귀여워!” 재롱부리며 같은 팀원으로서 일했던 옛 동료들과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모인 즐거운 사람들 틈에서 기술규제대응센터 김태환 책임은 유난히 행복해 보인다.

“거리감 없는 동료애가 듬뿍 담긴 사진을 찍기 위해 세 팀이 함께 왔어요. 지금은 다른 팀이지만, 모두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이죠. 같이 일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면서, 새롭게 다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네요. 우리들, 사이 좋냐고요? 이래 보여도 우리 친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거리감 Omm’를 완성하는 순간이다.

### 선후배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

동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팀원들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셔터가 눌러진 순간을 함께



기다리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같이 미소를 띠기 때문이다. 한 장으로 인화된 사진은 오래도록 서로에게 우정이나 추억이 될 것이고, KTR인들은 이 힘으로 “으쌔으쌔”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지혜롭게 소통하며 화합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금속재료센터 정혁 센터장의 말을 들으니 이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 “갈등을 잘 풀어내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선후배 동료들과 즐겁게 함께 사진을 찍어서 없던 갈등마저 겨울의 언뿔이 녹아내리듯이 말끔히 씻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서로 간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더 가까워진 기분이네요.” 좁은 포토 부스 속에서 응기종기 모인 사람들 사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생 네 컷’이지만 회사 안에서, 그것도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새로운 수밖엔 없을 터. 마치 처음 접하는 것처럼 신바람이 난다. 20여 년 전 유행하던 ‘스티커 사진 부스’만 접해본 세대도 신이 나긴 마찬가지이다. 평소에 세대 차이를

의식하여 가깝게 지내기 어려웠던 후배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들이 모여 셔터 소리를 따라 거침없이 각양각색의 포즈를 취하는 1381 정보지원팀이 그 모범이다. “여러 세대가 모인 1381 정보지원팀! 정말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사내 이벤트를 통해 동료들과 사진을 함께 찍어서 팀원 모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친해 보인다고요? 우리가 친한 이유는 허물없이 잘 지내기 때문이죠!” 1381 정보지원팀 김경희 연구원의 말속에 동료들과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기쁨이 담겨 있다. “선후배 간의 일체감 상승 비결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오늘날처럼 일체감 이벤트를 통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KTR인들을 보니, 우리들 사이가 생각 이상으로 정말 가깝게 느껴지네요.” 기후기술센터 박상훈 선임연구원도 KTR인들의 일체감 상승을 위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동료들의 소품을 함께 고르며 코드해주는 직원, 사진 포즈를 지도해



**KTR인 말말말**

☞ KTR과 KTR 동료들은 은인이예요. 저는 애 엄마인데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은인 같아요.  
글센터 오승아

☞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KTR 동료들, 파이팅!  
신뢰성평가센터 주원오

☞ 오랫동안 기억될 좋은 경험! 정말 좋아요!  
생활제품인증실 노성민

☞ 동기들과 찍었어요. KTR 동기들 파이팅!  
산학협력팀 최연옥

☞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참신하고 좋아요. 1등 시켜주세요! 파이팅! 힘내세요!  
비서팀 박연비, 임서현

☞ 친한 후배와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아~ KTR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도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표면분석센터 임찬우

주는 직원,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써 더 친해질 수 있어 행복하다는 직원 모두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사이가 서먹서먹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네요.” 재무회계실 서고은 실무원  
“함께 사진을 찍고 난 후, 다른 센터와 다른 팀들끼리도 서로 더 화합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고객지원센터 박소진 실무원  
KTR이라는 공통분모가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를 비추는 하나 된 KTR, 우리 정말 눈부세!**

동료의 마음과 표정에 대해 하나하나 더 알아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 속에서 팀 정신을 강화할 수 있다. 열과 성의를 다해 KTR의 모든 동료와 함께 인생사진을 찍고 있는 고분자재료센터 최문영 연구원처럼 말이다.

“세 번째 찍고 있어요. 다섯 명, 여섯 명씩 데려와 찍고 있어요. 함께 사진 찍는 원동력이요? 친절한 동료들 덕분이죠! 흔데레!”

KTR 임직원의 아침과 오후의 피로 해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내 카페 고메 플레이스 유수진 매니저도 일체감 이벤트에 동참해 동료들을 응원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어요! KTR 여러분! 생기 넘치는 봄날을 맞으시고 우리 함께 힘내요!”

하나가 된 빛은 강력해서 온 땅을 비출 수 있다. 그 단결에는 아름다움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라는 기록물을 통해 우리의 성과와 목표를 표현하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KTR의 오늘, 이 순간이 봄빛처럼 눈부신 까닭이다.

# KTR Photo Awards

이동하는 사진관 이벤트 수상 결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상자에게는 개인 연락처(팀 부서)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일체감상**

선물: 도미노 피자 3만원 상당

고분자재료센터 최문영 연구원

**더 가까이상**

선물: 아이오닉 블루투스 스피커

탄소중립평가팀 이우경 선임연구원

**케이뽀뽀상**

선물: 조미형 피자 선물

1381정보지원팀 이상규 전문위원

**노력이 가상**

선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비서팀 박연비 연구원 외 1인

고객지원센터 박현주 책임연구원 외 2인

바이오센터 광지혜 책임연구원 외 2인

전기제품인증실 박찬현 수석연구원

고객지원센터 오승아 연구원 외 1인

표면분석센터 임찬우 선임연구원 외 1인

소재평가센터 정현주 책임연구원 외 3인

산학협력팀 최연옥 책임연구원 외 1인

안전보안팀 하경훈 연구원



좌측부터 윤수영 선임연구원, 김재현 책임연구원, 문혜련 선임연구원, 이유경 선임연구원, 유재상 단장, 설소영 책임연구원, 안다희 선임연구원, 양영석 선임연구원, 최지선 책임연구원

## “하나가 될 때, 우리는 No.1”

###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

2023년 1월, 국가 탄소중립 선언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독보적인 연구기술로 인증 등에 신속히 대응해 새 시장을 선점하고자 신설된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 유재상 단장을 필두로 화합을 통한 성과를 꿈꾸는 그들은 자신들을 ‘No.1’과 ‘하나’라고 표현했다. 그들의 하나 된 순간을 엿보자.

#### KTR에 싱그러운 봄바람! 대응단 연구원들!

과천 본관 3층, 고요한 북카페가 요란스레 사람들의 말소리로 북적인다.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이 팀 빌딩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대응단이 신설된 지는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색함 없이 활력이 넘쳤다. 유재상 단장의 힘과 열정이 넘치는 목소리가 팀을 강하게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가 내세운 단의 첫 번째 과제는 ‘직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일할 때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친해지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도 나누면서 협업을 통해 재미있게 일해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성향을 알아서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직원들은 동료의 MBTI 성향에 대한 결과와 질문이 오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거나 의외의 성향이 나올 때는 폭소를 터트렸다. 그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워졌다. 대응단 간의 교감 능력이 향상되는 순간이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교감 능력을 자랑하는 이가 있으니, ESTP 수완 좋은 활동가형인 김재현 책임연구원이다.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껴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며, 동료들을 잘 포용하고 동료의 경험을 존중하는 그는 유재상



단장이 인정하는 활동가였다. “김재현 책임연구원은 굉장히 활동적이죠. 직원들과의 교감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읽는 거죠. 더욱이 대응단에 꼭 필요한 분위기 메이커죠.”

문혜원 선임연구원이 웃으며 단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직원들을 위해 정말 배려를 잘해주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김재현 책임연구원님이 꼭 챙겨주세요. 정말 일이나 관계에서의 수완이 좋으세요.” 능청스럽게 자신의 성향을 부인하면서도 호쾌하게 웃는 김재현 책임연구원은 듬직한 버팀목처럼 직원들 곁에 있었다. “우리 직원들! 앞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가족같이 함께 즐기면 좋겠어요. 향긋한 봄향기를 맡으면서요.”

김재현 책임연구원 곁에서 힘을 보태는 존재는 열정적으로 도전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ENTP 발명가형인 문혜원과 윤수영 두 선임연구원이다. 동료들에게 열정과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혜원 선임연구원은 대응단의 미래를 ‘하얀 도화지’라고 표현했다.

“서로 다른 팀과 서로 다른 센터가 모여 같은 단을 이루었잖아요? 함께 협력하며 대응단이라는 하얀 도화지 위에 예쁜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수영 선임연구원은 KTR에 싱그러운 봄바람을 불어넣는 대응단이 되도록 봄의 기운을 얻어 행복하게 일하자며 동료들에게 꽃향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둘은 팀 빌딩을 계기로 서로 더 가까워져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가 되고 싶다고 인사를 전했다.

### 맞을 올려라! 대응단의 첫 출항!

문혜원과 윤수영 두 선임연구원 곁에는 옳은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 같은 두 인물이 있다. 모든 일을 정해진 순서와 틀을 가지고 조직화시켜, 체계적으로 업무를 완수해 나가는 ESTJ 사업가형인 유재상 단장과 설소영 책임연구원이다. 리더의 아우라를 가진 유재상 단장은 첫 출항을 시작하는 대응단의 금의환향을 약속했다.

“전에 일했던 연구소를 두 배로 성장시켰어요. 여러분과 함께 대응단도 함께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업, 화합, 성과 모두! KTR의 No.1이 될 것입니다.” 김재현 책임연구원은 유재상 단장을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장이라고 치켜세웠다.

“지금만큼만 우리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장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같이 지내보시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설소영 책임연구원은 No.1이 곧 하나라고 표현하며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응단이 되기 위해, 하나 된 목표로 커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유재상 단장과 설소영 책임연구원을 꼼꼼히 챙겨줄 동료들이 있다. ISFJ 임금 뒤편의 권력형 안다희 책임연구원과 ISTJ 세상의 소금형 양영석 선임연구원이다.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안다희 책임연구원은 직접 경험한 것만을 믿는 편이며, 꼼꼼하게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동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배려하는 스타 일인 그는 대응단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게 돕겠다고 했다.

“대응단, 이제 첫 출발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유경 선임연구원이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응단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같은 단이 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온화하셔서 이 유형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는 ISTJ 세상의 소금형 양영석 선임연구원은 모든 것을 철저히 완수한다. 대응단의 업무도 완벽하게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대응단은 선구자죠. 국제 산업 환경 트렌드에 발맞추어 신속히 대응하며, 국제 규제사항에 대해 지식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응하기 때문이죠.” 대응단을 소금 같은 존재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 금의환향이 기대되는 탐험가들!

안다희 책임연구원과 양영석 선임연구원 곁에는 힘이 되는 두 동료가 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ISTP 백과사전형 이유경 선임연구원과 동료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ENFJ 언변능숙형 최지선 책임연구원이다. 이유경 선임연구원은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졌다.

“KTR의 탐험가 같은 존재인 대응단! 새로 배우고 서로 알아가야 할 상황이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친하게 지내길 희망해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 대응단의 문제해결사로 기대가 된다. 같은 팀원인 최지선 책임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경 선임연구원은 문제를 항상 논리적으로 해결하세요. 옛 방식이 아닌 언제나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훌륭한 리더 자질이 충분한 최지선 책임연구원은 언어에 재능이 있고 의사소통이 뛰어나다. 대응단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가 있어 두려운 것이 없다. 이유경 선임연구원이 공감하며 환호했다.

“맞아요! 최지선 책임연구원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상징과 비유를 즐겨 사용하는 최지선 책임연구원에겐 물었다.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이란 무엇인가?

“잔잔한 바다입니다. 풍랑이나 파도 등 위기가 오더라도 굳건하게, 하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동료들과 화목한 분위기를 이어 나가며, 협력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을 확신하는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의 멋진 출발, 이제 시작이다!

### 나에게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이란?

- No.1** 이대! 대응단 여러분, 꽃 피는 봄이 오면 봄나들이 갑시다! **유재상 단장**
- 하나** 이대! 향긋한 봄 향기 맡으며 즐겁게 지내요!! **김재현 책임연구원**
- 하얀 도화지** 이대! 따뜻하고 분홍빛이 가득한 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혜원 선임연구원**
- 하나** 이대!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설소영 책임연구원**
- 선구자** 이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꽃놀이 많이 다니세요! **양영석 선임연구원**
- 다이아몬드** 이대! 남은 달들은 계절 변화도 느끼며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다희 선임연구원**
- 바다 위에 거북선** 이대! Greeting! 따뜻한 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추억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최지선 책임연구원**
- KTR의 탐험가** 이대! 모두 마스크 벗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유경 선임연구원**
- 봄바람** 이대! 모두 봄의 기운을 얻으시고 행복하세요! **윤수영 선임연구원**

###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

# MBTI

<b>ESTJ</b> 사업가형	<b>유재상 단장 &amp; 설소영 책임연구원</b> 강 점   효율적인 업무 진행 보완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 협력점   동료들과 재미있는 업무 계획하기
<b>ESTP</b> 수완 좋은 활동가형	<b>김재현 책임연구원</b> 강 점   동료들과의 융통성 있는 협의 보완점   끈기와 인내 키우기 협력점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환경 조성하기
<b>ENTP</b> 발명가형	<b>문혜원 선임연구원 &amp; 윤수영 선임연구원</b> 강 점   분석적이고 혁신적 성향 보완점   규칙과 절차 존중하기 협력점   동료들과 토론 즐기
<b>ISFJ</b> 임금 뒤편의 권력형	<b>안다희 책임연구원</b> 강 점   깊은 배려심과 이해심 보완점   자기 의견 내세우기 협력점   동료들과 함께 봉사활동하기
<b>ISTJ</b> 세상의 소금형	<b>양영석 선임연구원</b> 강 점   책임감 있는 일 처리 보완점   변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취하기 협력점   문제해결 대안 함께 찾기
<b>ISTP</b> 백과사전형	<b>이유경 선임연구원</b> 강 점   논리적이고 뛰어난 적응력 보완점   열정과 적극성 키우기 협력점   동료들과 생각 계획 공유하기
<b>ENFJ</b> 언변능숙형	<b>최지선 책임연구원</b> 강 점   의사표현 확실 보완점   사람을 맹신하는 것을 주의하기 협력점   동료들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 고심하지 않기

###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



- 1\_ 국가 탄소중립 선언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사업·표준·인증 등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집중체계 마련
- 2\_ 화학규제정책 강화와 다변화 흐름에 맞춰 시장 선점 및 전문적 대응  
\*건축기후대응센터와 화학환경연구소 화학규제대응센터 통합 신설 부서





# AUDIO BOOK

사업지원본부 고객지원센터 박진명 책임연구원 가족 & 소재부품연구소 비파괴산업기술팀 정현도 책임연구원 가족

박진명 책임연구원 가족(남편 김경보, 딸 김민서, 박진명) & 정현도 책임연구원 가족(정현도, 아들 정하준, 정하준, 아내 손지숙)

## 민서, 하준, 하울이가 함께라면 늑대는 무섭지 않아요~

「늑대와 일곱 마리 새끼 염소」 녹음 현장



봄날, 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인공은 정현도 책임연구원의 가족(아내 손지숙, 아들 정하준, 정하울)과 박진명 책임연구원 가족(남편 김경보, 딸 김민서)이다. 협력하며 가깝게 지내온 두 책임연구원의 가족이 주말에 함께 만난 것은 그림 형제가 지은 명작 동화「늑대와 일곱 마리 새끼 염소」를 다 같이 낭독하여 오디오북을 만들기 위해서다.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즐거웠다는 두 가족이 하나가 된 흥미진진했던 현장을 엿보고, 두 가족의 목소리로 지혜를 가르쳐주는 동화를 들어보자.

### 두 가족의 첫 만남, 너무 재밌어!

“음메~, “늑대! 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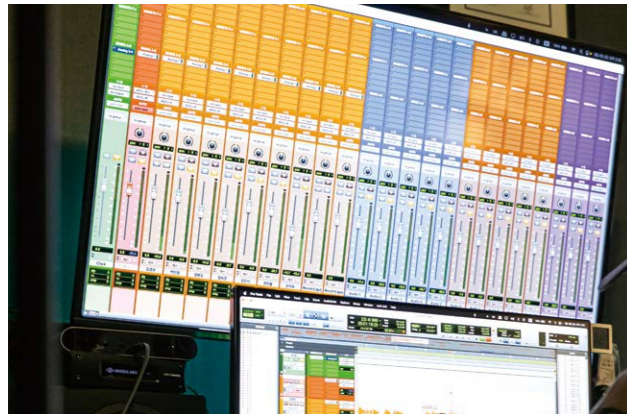
3월 4일 주말, 아담한 한 녹음실에서 귀엽고 예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진명 책임연구원의 딸 민서와 정현도 책임연구원의 두 아들 하준, 하울이다. 세 아이는 아이답게 첫 만남부터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서로에게 손 흔들며 “안녕!”하고 인사를 나눈다. 두 가족의 만남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료 가족들과 만남이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이다. 정현도 책임연구원의 아내 손지숙님은 “오랜만에 남편의 동료 가족들을 만나게 돼 정말 반갑네요”라고 이야기하며, 오디오북 만들기에 참여하길 참 잘했다고 웃음을 짓는다. 더욱이 아이들 셋이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니 두 엄마의 마음은 더 따뜻해진다. 박진명 책임연구원도 “정현도 책임연구원 가족과 만나 정말 즐거워요”라고 화답하며 대본을 꼭 쥐어 든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녹음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인다.

### 민서, 하준, 하울! 정말 참 잘한다!

오디오 감독의 “큐” 사인에 맞추어 엄마, 아빠와 함께 민서 공주님과 하준, 하울 왕자님이 웃음꽃을 피우며 동화를 읽는다.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표정이 밝고 힘차다.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천천히 동화를 읽으니 틀린 부분도 곧 바로잡힌다. 힘든 표정 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엄마, 아빠와 오디오 감독은 “민서, 하준, 하울! 정말 참 잘한다!”라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감탄사를 터트린다. 아이들의 녹음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대본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 박진명 책임연구원의 남편 김경보님은 사뭇 긴장한 모습이다. “가족과 같이 모여 연습하기는 했는데요. 맞벌이 부부라서 연습할 시간을 많이 가지지는 못 했어요.” 녹음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쑥스러웠지만, 녹음실에 들어서자 전문 성우처럼 술술 대본을 읽어 내려간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딸



"음메~ 우리  
두 식구가 힘을  
모으면 늑대는  
무섭지 않아!"



민서는 신이 나,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늑대 목소리 역을 맡은 정현도 책임연구원이 "아우~" 늑대 목소리 연기를 할 땐, 아이들이 늑대 울음소리가 재미있는 듯 "킁킁" 웃는다. 이어 녹음을 마친 정현도 책임연구원은 하준과 하울을 칭찬하면서 두 아이를 꼭 안아준다. 아빠의 품에 꼭 안긴 두 아이들은 귀여운 새끼 염소처럼 "음메~" 소리 낸다. "가족끼리 친밀도가 높아지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동료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는 말은 덤이다. 서로 가져온 간식거리도 나눠 먹고 동화책 그림도 함께 보면서, 두 가족은 잊지 못할 한편의 동화를 만들어간다. 녹음실을 지키는 고양이의 애교도 동화 속 장면이 된다.

**음메~ 아우! 나쁜 늑대를 물리치는 귀여운 민서, 하준, 하울 염소들!**

새끼 염소와 어미 염소가 함께 도와 지혜롭게 늑대를 물리치자, 온 가족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두 시간 동안의 오디오북 녹음이 끝나자 두 가족은 "와! 우리가 해냈다"라는 표정으로 서로를 꼭 안아준다. 박진명 책임연구원의 귀여운 딸 민서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어요!"라며 폴짝폴짝 뛰고, 정현도 책임연구원의 두 아들 하준과 하울은 "민서와 함께해서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음메~ 음메~" 염소 울음소리를 장난스럽게 낸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었지만, 두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쁜 늑대를 물리쳤기 때문이다. 동화책을 두 손에 꼭 쥐어 아이들의 마음에 용기와 지혜가 샘솟는다.

"하준이, 하울이가 너무 재밌게 녹음하는 모습을 보니 많이 큰 것 같아서 마음이 몽클해요. 우리 두 아이 참 기특하네요. 올해 입학했거든요. 입학 기념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네요." 정현도 책임연구원 아내 손지숙 님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완성된 오디오북이 너무나 기대되네요. 두 가족이 추억을 남길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박진명 책임연구원

오늘 두 가족은 함께 동화 오디오북을 만드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화합과 소통, 그리고 삶의 지혜를 완성하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두 가족이 KTR 임직원에게 전하는 봄 인사  
"KTR 가족 여러분!  
우리 동화 잘 들으셨나요?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진명 책임연구원 가족

"KTR 가족 여러분!  
정말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 건강하세요!"  
정현도 책임연구원 가족

**🎧 KTR 명작 동화 오디오북**

**『늑대와 일곱 마리 새끼 염소』**

목소리 출연 : 손지숙(어미 염소), 정현도(늑대), 정하준(새끼 염소3), 정하울(새끼 염소2), 박진명(해설), 김경보(해설2), 김민서(새끼 염소3)

줄거리 : 어미 염소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곱 마리의 새끼 염소를 노리고 나타난 늑대! 잔꾀를 부리며 새끼 염소를 하나둘 잡아간다... 마지막 남은 새끼 염소 김민서, 정하준, 정하울은 어떻게 이 늑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서로 도와 지혜롭게 행동하며 엄마를 의지하면 두려운 것이 없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명작 동화.

**동화 미리 보기**



박진명(해설1): 옛날 옛적에, 어미 염소와 일곱 마리의 새끼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 염소는 새끼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염소가 새끼 염소에게 말했습니다. 손지숙(어미 염소): "음메~ 사랑하는 아이들이야, 나는 숲에 다녀와야 한다. 너희는 늑대를 조심하게야. 만약 늑대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너희를 전부 먹어버릴 거야."



정현도(늑대): "문 열어서 애들아 엄마가 왔단다. 너희에게 줄 선물도 가져왔어. 아우~" 정하준(새끼 염소1): "늑대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김민서(새끼 염소3): "음메~ 사랑하는 엄마 목소리와 아우~ 늑대 목소리를 우리가 헛갈릴 줄 아느냐!" 정하울(새끼 염소2): "우리 엄마는 너처럼 검은 발톱이 없어. 음메~"



두 가족이 만든 명작 동화 듣기

# MAGIC

하나, 둘, 셋, 째!  
우리 사이가 진짜 마술!

KTR 충북센터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 같은 마술은 일어난다.  
성과급 1등, 매출 1등, 행복 1등이라는 세 가지의 꿈을 마술처럼  
융합 중인 KTR 충북센터의 정겨운 마술쇼 무대로 들어가 보자.



좌측부터 이수인 선임연구원, 최우석 책임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 이예인 실무원, 정지은 연구원



### 박수소리가 커질 때, 더 빛나는 마술!

매직트리 이성호, 이민지 두 마술사의 불꽃마술이 펼쳐지자, KTR 충북센터 회의실이 술렁인다. “우와!” 동그랗게 커진 눈빛으로 감탄을 보내는 이예은 실무원의 리액션에 마술사의 표정은 더욱 생기를 띠고, 손놀림은 빨라진다.

“이예은 실무원님! 감사합니다. 마술사는 응원을 먹고 살죠! 연구원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마술사가 무대에 서는 이유를 통해, 동료에게 보내는 갈채와 환호가 가진 힘을 깨달으면서 마술 이론수업이 시작되었다. 마술의 핵심요소는 연출, 미스디렉션, 연기력, 손기술, 아이디어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꾸준한 연습이다. 캐나다의 전설적인 마술사 데이 버넌은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의 기초인 연습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고, 굳어있는 손가락 근육을 풀면서 마술 세계로 빠져들었다.

### 함께한 순간이 우리에게 마술!

우리가 배울 마술은 세 가지다. 먼저, 불꽃이 장미로 활짝 피어나는 파이어 로즈다. 기념일을 맞은 동료에게 보여주면 분위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마술이다. 마술사의 손에서 불꽃이 타오르자, 다들 긴장한 눈치다.

“마술사는 관객 앞에서 긴장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프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술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대다수 관객은 마술의 비밀을 밝히려는 성향이 있어, 마술사는 표정 하나하나까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연출해야 한다. 마술도 연구원의 일처럼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정지은 연구원의 파이어 로즈 마술 준비를 돕는 이예은 실무원의 마음처럼 말이다.

“동료들과 함께한 마술 수업!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열심히 연습해서

### 마술가들의 불문율

- 첫째, 마술 트릭을 공개하지 않기
- 둘째, 같은 마술을 상대에게 바로 두 번 이상 보여주지 않기
- 셋째, 마술을 보여주기 전에 마술 현상을 미리 설명하지 않기





“따뜻한  
봄날! 우리  
동료들에게  
행복한 마술이  
일어나길  
바라요!”  
정지은 연구원

“충북센터 남자 직원들이 키가 크게  
자라고, 샤프한 몸매로 변하는 마술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책임연구원



꼭 친구와 동료들에게 성공적인 마술을 보여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행복해지는 봄날의 마술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의 곁에서 호흡을 맞춘, 정지은 연구원의 마음도 덩달아 정겨워진다.  
“정말 특이한 경험이에요. 동료들과 이런 이벤트를 종종 하면 봄날이 더욱 따뜻할 것 같아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마술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하트 모양의 스펀지가 마술사의 손에서 사라졌다 싶는데, 어느새 두 개가 되어 나타난다. 때로는 우리들의 사랑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다. 스펀지 하트 마술이다. 이 마술의 포인트는 자연스럽고 빠른 손놀림이다. 그리고 관객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마음을 더욱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마술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마다 하트는 더욱 커진다. 이 마술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이상훈 책임연구원의 마술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 제 삶에 마술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이 제게는 마술이거든요. 오늘 마술을 처음 배웠는데, 정말 신기해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마술도, 삶도 정말 행복합니다. 동료들에게도 행복한 마술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어느덧, 마지막 마술 순서가 왔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멘탈마술이다. 동료가 1에서 6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면, 그가 어떤 숫자를 골랐는지 알아맞히는 숫자카드 마술이다. 이성호 마술사가 숫자카드를 보여준다.



“숫자를 생각하셨나요? 여섯 장의 숫자카드를 보여드릴 때, 각 카드에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 마술을 할 때는 절대 멈춰서면 안 된다. 마술은 상대의 마음을 순간포착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술사는 곧 연구원들의 마음을 읽어냈다. “언빌리버블!” 탄성이 쏟아진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를 맞혔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조용히 마술연습에 골몰하고 있던 이수인 선임연구원이 슬며시 손을 든다. 마술의 비법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마술사 불문율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작게 소곤거린다. 짧은 시간 안에 마술 비법을 알아낸 그의 영리함에 마술사가 깜짝 놀란다.  
“이 마술, 제일 재미있네요. 단숨에 마술을 깨우친 비결이요? 입사 준비하면서 인적성검사를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수열을 제일 잘했거든요. 친구들에게 배운 마술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배운 마술의 힘을 통해서 가족분들이랑 애인분들이랑 따뜻한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최우석 책임연구원이 KTR 일일마술사로 나섰다. 조금 긴장이 되지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슬며시 엿보이며 이상훈 책임연구원에 마술을 시연한다. 곁에서 동료들은 “킁킁” 웃으며 장난을 친다.  
“자, 여섯 장의 숫자카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생각한 숫자가 있으며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숫자가 있나요? 이 카드에는 숫자가 있나요?”  
최우석 책임연구원은 동료들의 마음을 읽어냈을까? “땡!”  
“처음이라 동료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지만, 연습해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오늘 마술 수업을 통해 올해에는 충북센터가 성과급 1등, 매출 1등, 행복 1등을 달성할 수 있는 마술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술사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마술사는 그 실수조차도 마술로 보이게 한다. 최우석 책임연구원을 향한 동료들의 격려 한 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마술이 아닐까?  
“이제 처음이잖아! 우리끼리는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의 봄날이 놀라운 기적과 사랑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꿈꾸며, KTR 마술사는 하나, 둘, 셋! 연기와 함께 사라진다.



**KTR 매직 포인트!**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난이도와 손기술이 아닌, 관객(동료)을 감동하게 하는 것!



# 너를 위한 우리들의 포메이션

# U

표지 촬영의 미션은 사보의 새 이름 <KTR&U>의 'U'를 성공적으로 함께 구현하는 것. U 포메이션을 함께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은 '일체감'과 '협동심'으로 웃음꽃이 만개했다.

## 모두 입을 모아 외친 KTR의 힘, 협동심!

“오랜만에 밖에서 표지 촬영을 통해 동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생활제품인증실 이지영 책임연구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모르는 동료들이 많았는데, 표지 촬영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어 정말 좋네요. 동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제품인증실 김현섭 팀원

“동료들과 U 대형을 이루어 표지 사진을 찍는 것이 정말 새롭고 뜻깊어요. 앞으로도 여러 동료들과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어요.” 전기전자센터 남궁권 선임연구원 & 정재현 선임연구원

“KTR은 가족이죠! 우리만의 끈끈한 정이 U 대형을 똑딱 만들게 한 원동력이죠!” 제품위해성센터 황범구 센터장



## 예쁜 꿈꾸며 활기찬 새봄을 보내세요!

“오늘처럼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다 같이 KTR의 비전을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KTR만의 특별한 일체감이 아닐까요? 활짝 핀 봄꽃처럼 향기롭고 예쁜 꿈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전성규 부원장

“다 함께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표지 촬영에 임하는 것을 보니 너무 좋네요. U 대형을 함께 이룬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직원 전체가 같은 목표를 갖고 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일해 봅시다! 직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현철 원장



# KTR+FOCUS

하나의 주제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는 기획 섹션입니다. 미래와 세계로 함께 나아가는 KTR인들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일체감  
mm

26

테마 인문학  
서로 나누며 한데  
어우러져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28년, 원팀으로 한길을  
달려온 밴드 크라이닉!

32

미래적 참견시점  
챗GPT 시대,  
일인군단의 시대

36

호기심 백과사전  
8cm 구두 굽이 만든 관계의  
틈을 좁혀나가는 현대인들

# together

## 서로 나누며 한데 어우러져

### 개미에게서 배우는 일체감

조직에서의 일체감은 더 나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도우며,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게 한다. 무엇보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일의 능률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개미의 삶을 통해 한데 어우러져 사는 기쁨의 지혜를 발견해 보자.

개미는 땅속이나 썩은 나무에 집을 짓고 떼 지어 사는 곤충이다. 개미는 여왕개미와 일개미 그리고 수개미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 일한다. 몸이 가장 큰 여왕개미는 암개미로서 알을 낳는 일만 한다. 날개가 달린 수개미는 결혼 비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일개미는 집짓기, 먹이 모으기, 여왕개미 돌보기, 알과 애벌레 보살피기와 같은 일을 한다. 일개미 중에는 바깥에서 집을 지키고 적과 싸우는 병정개미도 있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개미도 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서로 나누며 한데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되어야만 '오래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사람도 개미처럼 집을 짓고 서로 나누며 한데 어우러져 산다. 이렇듯 개미와 사람은 닮은 데가 많다. 잠언에는 개미가 등장하는 비유가 나온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깨쳐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 (잠언 6장 6절-8절)

그러나 아무리 개미가 부지런한들 사람보다 부지런하겠는가. 지구촌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고, 심지어 겨울철에도 일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지 않은가?

“바깥 활동을 하는 일개미가 전체의 20~30퍼센트다. 나머지 70~80퍼센트는 집안일을 하며, 바깥 활동을 하는 일개미들의 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여 대기 중이다.”

### ‘나’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나는 산골 농부다. 2005년, 메마르고 복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합천 황매산 자락 산골 마을에 빈집과 논밭을 빌려 뿌리를 내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눅 들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인지를 잘 알아보고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오래된 미래’를 꿈꾸며 공동체와 학교를 만들었다. 농촌이 농사만 짓는 ‘농장’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 있는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둘레에 사는 뜻있는 농부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밥을 먹으며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기로 했다. 이름을 ‘열매지기공동체’라 지었다. 달마다 모여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한 가지씩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 실천하기로 했다. 어머니처럼 모든 생명을 품어 살리는 흙과 지하수와 작은 개울과 강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와 비닐을 쓰지 않고 농사(유기농업)를 짓자. ‘돈벌이 농사’가 아니라 ‘살림살이 농사’를 짓자. 농약과 화학비료와 농기계를 쓸 수밖에 없는 ‘대농’보다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소농’으로 살자. 수세식변소를 쓰지 않고 생태퇴간을 지어 식구들이 눈 똥오줌을 거름으로 만들어 쓰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작은 흙집을 짓고 방에는 구들을 깔아 아궁이에 군불을 때자. 자연재해로 전기와 기름과 가스가 사라진다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두 번째, 농부들의 손으로 학교를 세웠다. 콘크리트로 지은 딱딱한 학교가 아니라 산과 들이 모두 스승인 학교, 한글도 모르고 한평생 명함 한 장 만들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땀 흘리며 농사지으며 살아온 어르신이 스승인 학교, 어르신(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토요일, 농촌 어린이들과 함께 노동과 공부와 놀이가 하나인 ‘강아지몽학교’를 세웠다.

세 번째, 농촌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든 나쁜 어른들 한테 속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웠다.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토요일, 달마다 다른 주제로 강사를 초청하여 듣고 배우고 토론하고 깨달을 수 있는 ‘담쟁이인문학교’를 세웠다.

“**‘잎꾼개미(가위개미) 같은 종류는 농사를 짓는다. 식량 수송대인 큰 일개미가 가져온 잎을 식량 창고에 쌓아두면 대기하고 있던 작은 일개미들은 그 잎을 입으로 씹어 빵아서 죽처럼 만든다.’**”

네 번째,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농부 지원금> 통장을 만들었다. 그 지원금은 선배 농부들 스스로 기부를 하고, 모자라면 기부금을 받도록 했다. 기부금으로 청년 농부들에게 해마다 100만 원씩 지원하고, 청년 농부 세 사람 이상 여행을 가거나 교육과 행사를 할 때 조건 없이 지원한다. 함께 해야만 공동체 정신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농부들이 손수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직거래할 수 있도록 ‘열매지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터를 마련하여 작업장을 지었다. 그리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나’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고 다짐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청년 농부들의 미래를 살리고,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게. 사람이 자연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적’이 되지 않고 ‘벗’이 될 수 있게.

### 현실이 되는 함께 꾸는 꿈, 어떤가요?

농부가 되고 18년,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이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 양식을 장만하고 추수철에 먹이를 모아들이는 세상”을 꿈꾸며 개미처럼 살았다. 여태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아니면 돈 몇 푼 받으려고 한 일이라면, 일을 해도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을까? 나는 오늘도 뜻있는 동료들(농부들)이 곁에 있어 삶이 날마다 설레고 흐뭇하다. 아무리 좋은 꿈도 혼자 꾸었으면 꿈으로 그쳤겠지만, 함께 꾸는 바람에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어찌 살맛이 나지 않으랴.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개미를 생각한다.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서로 나누고 한데 어우러져 한 덩어리가 되어야만 ‘오래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좌측부터 한경록, 이상혁, 박태준 선임연구원, 박윤식, 김인수, 이상민

# CRYING NUT

28년, 원팀으로 한길을 달려온  
밴드 크라이닝넛!

## 크라이닝넛에게 듣는 일체감

열혈 사춘기 때부터 우당탕 중년이 된 지금까지 28년간 록을 부르짖으며 신명 나게 질주한 밴드 크라이닝넛. 록이라는 꿈을 향해 멤버들과 부대끼며 디스토션 걸어 헤드뱅잉을 해온 그들과 찐팬 도장재료센터 박태준 선임연구원이 만나, 일체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자가 어긋나도 그들은 씩 웃으며 연주하고 노래할 뿐이었다.

## 음악이라는 하나 된 꿈과 재미!

홍대 크라이닝넛 합주실에 들어서자 크라이닝넛의 아우라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전국 클럽을 떠돌며 무대를 휘저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밴드 크라이닝넛의 기타, 베이스, 드럼, 아코디언과 앰프들이 한국 인디록의 독심처럼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말달리자', '서커스매직유랑단' 등 크라이닝넛의 명곡들이 연주되고 탄생한 공간 속에서 좋아하는 밴드와 함께 있다는 것은 박태준 선임연구원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평소 크라이닝넛의 팬이었다는 박태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못하다 무대에서 자유롭게 공연한 그들의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다. 보컬 박윤식이 우리에서 나온 야생 호랑이처럼 호쾌한 웃음을 터트렸다.

"공연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담금질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무대 위에서 담금질 된 기타로 세상을 다 뚫어버려야죠! 다시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올해로 데뷔 28주년을 맞은 크라이닝넛은 멤버 변화 없이 록이라는 꿈을 품고 8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하며 전력 질주해 왔다. 원팀으로 지금까지 해올 수 있던 이유로 기타리스트 이상민은 '가족과 같은 존재'를 꼽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이겨내는 것이다. 드러머 이상혁은 음악적 견해 차이로 인한 충돌을 좋은 음악을 만드는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불화가 지속할 틈이 없다고 했다.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는 공통된 뚜렷한 목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 성향의 다섯 멤버가 가진 생각들을 조금씩 건너내거나 더하는 해체와 화합을 거쳐 크라이닝넛만의 음악을 완성한다는 김인수의 말처럼 말이다. 베이스스트 한경록은 "밸런스"를 강조했다. "크라이닝넛에는 메신나 호나우두 같은 스타플레이어가 없어요. 모든 멤버가 균형감 있게 연주를 하죠. 한 선수만 골을 넣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오래 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 색깔이 조화를 이루며 바다를 향해하는 느낌으로 연주하는 것이 단합의 비결이죠. 누가 조금 더 음을 높인다거나 빨라지면 멤버들이 알아서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게 맞추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크라이닝넛만의 오묘한 조화죠."

박태준 선임연구원의 심장이 빨라진다. 주옥같은 크라이닝넛의 말들이 그의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진다.



## About CRYING NUT

1993년 고교동창 4명(박윤식, 이상면, 한경록, 이상혁)이 결성한 밴드 크라이닝넛은 1995년 홍대 라이브클럽 드럭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고, 한국 최초의 인디 앨범 *Our Nation vol.1*에 참여했다. 1998년 첫 정규앨범 *크라이닝넛*을 발매하고 히트곡 '말달리자'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28년 동안 정규앨범 8장을 발표했으며, 1999년 아코디언 연주자 김인수 합류 이후, 멤버 변화 없이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Discography

- 1집 <CRYING NUT>(1998)
- 2집 <서커스 매직 유랑단>(1999)
- 3집 <하수연가(下水戀歌)>(2001)
- 4집 <고물 라디오>(2002)
- 5집 <OK 목장의 젖소>(2006)
- 6집 <불편한 파티>(2009)
- 7집 <FLAMING NUTS>(2013)
- 8집 <REMODELING>(2018)

### Awards

- 2022년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한경록)
- 2019년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밴드 부문 상

### 함께 꿈을 이루는 일, 만화 같은 일!

동료들과 꿈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박태준 선임연구원이 “정말 만화 같은 일이 아닌가요?”라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자 박윤식이 손사래를 친다.

“음악적 이견으로 다투면, 초등학교 때 서운했던 일까지 이야기해요.(웃음) 뭐, 탄소 결합이죠.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죠. 이 친구들이 있어 어려울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해외공연을 하고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크라이닝넛은 매년 당연한 듯 함께해오는 느낌으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동료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였다. 김인수는 “잇을 만하면, 옆에 계속 있어 주는 멤버들에게 감사하죠”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경록은 “100세 시대잖아요? 음악이라는 놀이를 친구들과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너무 어른스러우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개구쟁이 친구들이 더욱 고맙죠”라며 씩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던 때, 그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 이상면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지난 3년이 가장 큰 슬럼프였다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왔는데, 무대에 설 수 없으니 수익도 사라졌죠. 그때, 크라이닝넛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어요.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통해 공연을 찾지 못했던 국내외 팬들이 접속해서 응원을 보내주어서 힘이 났죠.”

음악을 만드는 매 순간도 창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슬럼프의 연속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소통과 공감할 수 없었던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크라이닝넛은 무대와 노래가 그들을 위한 축제를 준비했다. 바로 '경록절'이다.

### 우리는 같은 별에서 사는 똑같은 사람들!

2007년 2월 11일, 한경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밴드들이 함께 공연하면서 시작된 경록절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홍대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동안 대면공연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방역 완화로 인해 올해 다시, 열린 것이다. 일명 '2023 경록절 마포르네상스'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음악 하는 동료들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버텼다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르네상스 같다고 생각했어요. 흑사병이 발병한 이후, 유럽의 문화가 융성해진 것처럼 우리나라 인디문화도 그럴 것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간 희망의 페스티벌이었죠.”

경록절은 최백호, 김창완, 김수철 선배 음악인부터 노브레인 동료 음악인과 잔나비, 멜로망스 등 후배 음악인이 참여했다. 또한 화가와 작가도 함께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었다. 온 장르와 온 세대를 하나로 묶는 일체감 축제였다.

“융합이죠. 힙합, 국악, 록, 디제잉 등 온 장르가 하나였죠. 남녀갈등, 세대갈등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음악 안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거죠.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서 사는 똑같은 사람들이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죠. 경록절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김인수가 경록절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덧붙였다. 무대에서 연주하는 본인이 재미가 없으면, 공연을 보는 사람들도 재미없다면서, 밴드 스스로가 무대를 재미있게 즐기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더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KTR 직원들, 자부심을 느끼면 일과 삶이 재미있을 것!

박태준 선임연구원이 KTR 직원들을 위한 단합과 룬런의 팁을 듣고 싶다고 하자, 박윤식은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가면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단합의 팁이라고 전했다. 이상면은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룬런을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귀띔했고, 이상혁은 재미를 강조했다. 박태준 선임연구원은 자신 또한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크라이닝넛은 KTR 직원들에게 싫어하는 일도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 자신의 마음을 끄는 점이 반드시 있다면서, 힘들 때 그런 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봄이잖아요? 웃이 가벼워진 것처럼 마음도 가벼워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신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KTR 단합이요? 크라이닝넛 공연을 보시면 절로 이루어집니다. 축제 때 불러주세요!”

크라이닝넛으로부터 일체감의 가치를 배운 박태준 선임연구원은 KTR 직원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다.

“우리도 크라이닝넛처럼 동료들과 재밌고 사이좋게 지내요! 그래야 오래오래 함께 일할 수 있겠죠? KTR 직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KTR의 뜨거운 함성이 크라이닝넛의 '말달리자'와 함께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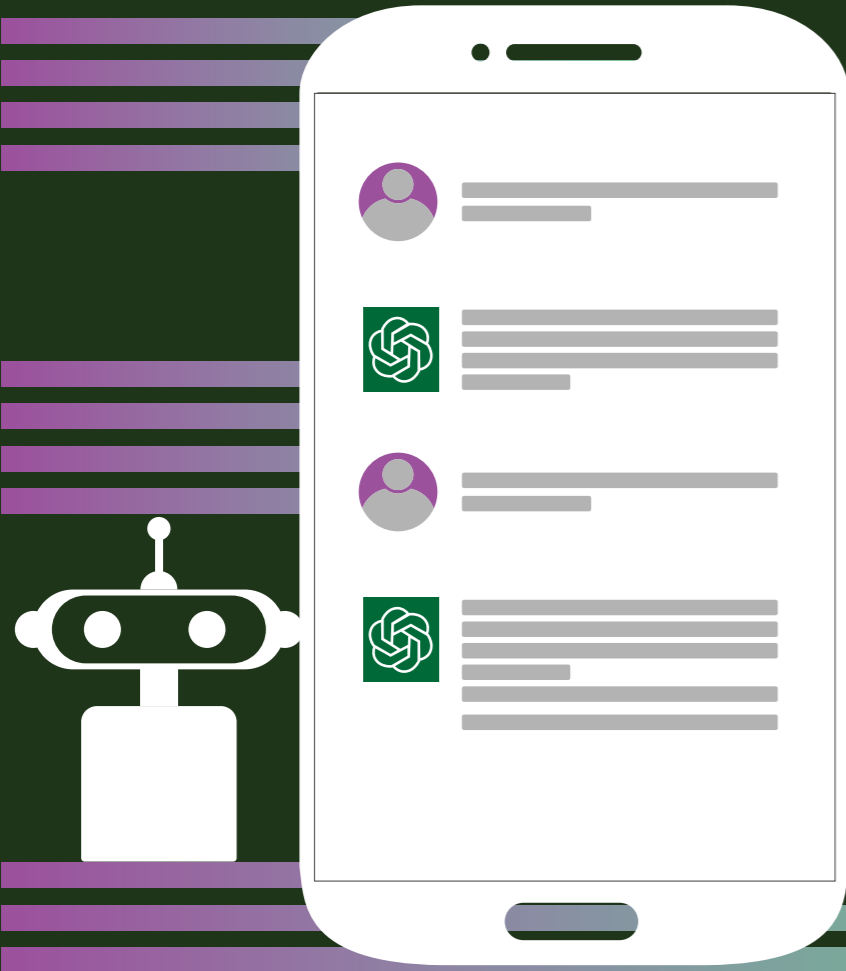


크라이닝넛이 추천하는 화합을 위한 노래  
'비둘기', '소달리자', '마시자', 'Give Me the Money'



# 챗GPT 시대, 일인군단의 시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으로 한 발짝 성큼 다가온 챗GPT는 무엇이며, 챗GPT 시대를 맞아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조직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자.



# ChatGPT

## 챗GPT의 첫 등장은?



2022년 11월 중순,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AI 서비스를 하나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갤럭시타(Galactica)로, 직접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무척이나 스마트한 인공지능입니다. 갤럭시타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이며 전 세계의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긴장하게 했으나,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스스로없이 내뱉는 바람에 3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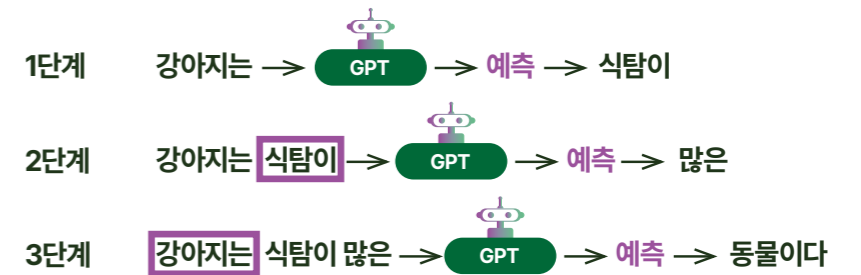
이 모습을 지켜보던 OpenAI<sup>1)</sup>의 수장 샘 알트만(Sam Altman)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OpenAI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언어 인공지능인 GPT 시리즈를 공개해 왔습니다. GPT-3는 2020년에 공개된 AI모델이며, 전 세계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GPT-4의 공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갤럭시타가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샘 알트만은 GPT-4가 출시되기 전, 다른 대기업이 고성능 인공지능을 공개하면 주목도가 빼앗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급히 개발자들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에 발표했던 인공지능인 GPT-3<sup>2)</sup>를 활용한 채팅 서비스를 즉시 출시하세요.” 그리하여 13일 만에 급하게 만들어진 채팅 서비스가 공개되었으니, 이름하여서 ‘챗GPT’입니다.

## 챗GPT의 원리는?



챗GPT는 인간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고, 마치 사람처럼 유창하게 대답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챗GPT는 단어 퀴즈를 풀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원본문장 **강아지는 식탐이 많은 동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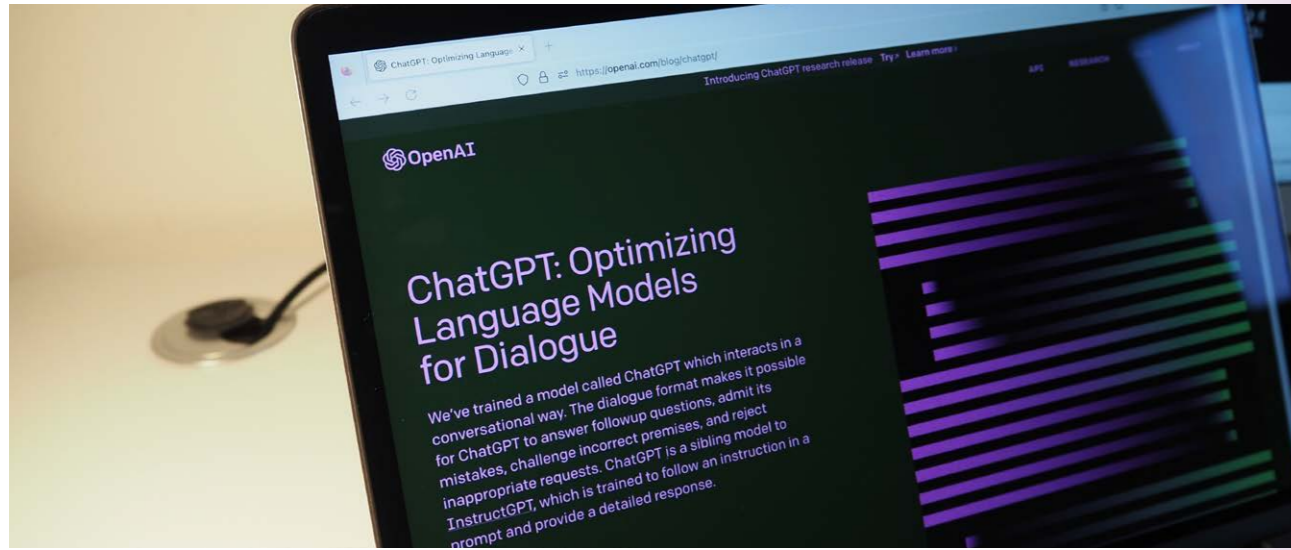
위와 같이 4개의 단어(Token)로 구성된 문장으로는 3번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GPT는 문장의 일부 조각을 입력받고, 그 뒤에 올 단어를 예측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AI가 답변해야 하는 문제의 난이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라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은 어텐션<sup>3)</sup>을 의미합니다. 어텐션은 AI가 지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받은 복잡한 데이터 중 어느 일부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판단해 주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위 그림에서 AI는 “많은”이라는 단어를 예측하기 위하여 “식탐이”를, “동물이다”라는 단어를 예측하기 위하여 “강아지는”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개발자로서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대량의 문장만 수집하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어서 편리하고, AI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인간의 언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AI를 약간만 손봐 사람이 입력한 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름의 답변을 생성하도록 만든 것이 챗GPT입니다.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의 우려와 달리 챗GPT는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를 짜깁기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장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해하여 스스로 작문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따라서 챗GPT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해체하고 분석하더라도 학습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챗GPT, 달리, ImageGPT등을 발명한 미국의 조직으로,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던 비영리단체였으나 자금난을 겪으며 영리법인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뉴스에서 언급되는 OpenAI의 투자유치 소식은 자회사인 영리법인의 자본 취득을 의미함.  
2) Brown, Tom, et al.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2020): 1877-1901.  
3) Bahdanau, Dzmitry, Kyunghyun Cho, and Yoshua Bengio.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arXiv preprint arXiv:1409.0473 (2014).



###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ChatGPT의 원래 공개 의도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해요!”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ChatGPT가 세상의 온갖 지식에 막힘없이 대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학습한 데이터에 다양한 지식들이 섞여 있었고, 이때 습득한 지식이 ChatGPT의 AI에 희석된 채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유창한 발언만 가능할 줄 알았던 AI가 만물박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과 일반인,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hatGPT가 세상의 삼라만상을 모두 꿰뚫고 있으며, 더 이상 검색엔진이 필요 없어지리라 예측하기 시작했지요. 구글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반응이 의도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일까요? OpenAI의 수장 샘 올트만은 임직원들에게 ChatGPT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ChatGPT의 가입자 폭증을 자축하는 글을 SNS에 올린 임직원에게는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컸나 봅니다. 의외로 ChatGPT는 지나치게 똑똑했습니다. 미국의 의사 라이선스 시험에 합격했고, 와튼스쿨의 MBA 시험에도 합격했으며,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버렸습니다. 이에 로펌들도 ChatGPT를 구매하여 AI변호사 개발에 착수했지요. 일본에서는 아예 전 국민 누구든지 돈을 내지 않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ChatGPT 변호사를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기관도 등장했습니다.

### ChatGPT, 똑똑한 것 맞아요?





ChatGPT에게 “을지문덕의 검에서 번개가 발사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 줘”라거나, “이방원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후의 전투에 대해 설명해 줘”라는 요청을 하면 즉석에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한 묘사를 덧붙이면서요. 이 답변에 정보전달력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아울러 질문을 잘 설계하는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ChatGPT 등장 이후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인공지능 개발이 시작되었기에, AI에게 전달할 질문의 레시피를 설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sup>4)</sup>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ChatGPT가 특정 전문 분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고, 검열을 피해 비윤리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미드저니<sup>5)</sup>와 같은 다른 인공지능도 텍스트를 입력받으므로, AI에 입력할 텍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문의 레시피를 사교파는 마켓플레이스<sup>6)</sup>도 이미 등장했고, AI에게 전달할 질문을 설계하는 프롬프트 해커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프롬프트 전문가 연봉은 3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입니다. AI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AI의 성장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10~20배가량의 경제적 가치를 혼자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결과적으로 AI를 잘 설득하여 유용한 정보만 답변하도록 길들이고, AI를 활용하여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AI가 제공한 정보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세 가지 역량을 갖춘 사람은 AI에게 대체 당하는 대신, AI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면서 경쟁자보다 수십 배 뛰어난 생산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바로 이쪽일 것입니다.

### 주입식 교육은 AI에게도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hatGPT에게 전문지식을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hatGPT에게 질문하기 전 해당 분야의 지식을 직접 제공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을의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이 문장에서 "같은 을의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은 민형사상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말이나 행위가 타인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경우, 그 사람은 민형사상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공연히 적시한 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을 ChatGPT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두루뭉술한 답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hatGPT의 채팅창에 대한민국의 형법과 민법 조문을 입력한 뒤 동일한 질문을 하면, 답변의 퀄리티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같은 을의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생겼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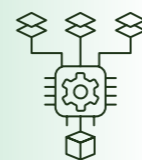
 갑이 을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공연히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경우, 이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법상으로는 갑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인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은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이 거짓 정보 대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공익을 위한 것이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조문의 인용이나 벌금까지 안내해 주고 있으며 법원이 적용되지 않는 면제 사유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쉬운 적용례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개인의 생산성을 기성 조직의 생산성과 맞먹는 수준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보다 몇 배 이상 높은 연봉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채용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 일인조직, 일인군단, 각자도생



AI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시장 내의 생산성의 공급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생겨날 것이며, 통상적인 1인분의 생산성을 제공하는 사람 대다수가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점 이후 사회를 대비한 기본소득제도가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영향력을 갖춘 개인의 생산성이 기성 조직의 생산성을 뛰어넘을 것이며, 개인이 곧 군단이 되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세상의 발전 속도에 맞춰 자신의 생산성을 성장시키지 못한 개인은 조직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적절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조직이 일체감을 유지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확고한 문화일 것입니다. OpenAI에는 인류를 위한 AI기술 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버에는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개발자들이 모여 있고요.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 하나의 목표를 강력한 구심점 삼아 노력하고 있나요?

4) Prompt Engineering. 프롬프트는 AI에게 입력하는 텍스트 명령어를 의미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에게 전달하는 텍스트를 잘 설계하여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내는 기법을 의미한다.  
 5) Midjourney. 텍스트를 입력받아 그림을 그려주는 AI.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이 2022년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술 대회에서 인간 화가들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6) <https://promptbase.com>

# 8cm 구두 굽이 만든 관계의 틈을 좁혀나가는 현대인들



하이힐을 신고 있는 루이 14세



## 아무나 신을 수 없었던 하이힐!

하이힐을 아무나 신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높은 구두 굽을 신는 것은 귀족만의 특권이었던 때문이다. 키 163cm의 프랑스 루이 14세는 하이힐을 즐겨 신었는데, 높은 곳의 공기를 마시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야 자신의 권위가 산다고 믿었다고 한다. 이것은 상류층의 유행이 되었고 귀족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 이처럼 높은 굽의 구두는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신분의 상징이었다.

##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하이힐, 왜 여성이 신게 되었나?

하이힐은 여성보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귀족 남성들도 일하게 되면서 패션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이힐을 멀리했다. 그때부터 가사를 도맡아 하던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게 되었다고 한다.

마릴린 먼로는 "하이힐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여성이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라며 하이힐을 칭송했다. 그렇게 하이힐이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불편과 고통은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여성의 덕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다.

왜 구두 굽의 높이는 신분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남성의 전유물에서 여성의 전유물이 된 하이힐을 현대 여성들은 벗어 던지기 시작했을까? 영화 <유령>에서 유리코 역을 맡은 박소담 배우는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하이힐을 벗어 던지는 순간이라고 했다.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겨왔던 인물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콤플렉스를 감추면서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높은 구두 굽을 신은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실을 감추거나 힘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높은 굽의 구두를 벗어,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의 거리를 좁혀 가는 세상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 high heel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칸 영화제에서 하이힐을 벗고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

**불편한 구두 착용 강요하지 마세요!**

“스무 살 때 미팅하는 날 굽이 8센티미터인 하이힐을 처음 신었어. 예쁘게 입고 나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애들 머릿속에는 ‘예쁘게 입는다’는 이미지가 다들 비슷했나 봐. 애들이 다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세상 불편하게 나왔어. 하이힐 효과로 키가 8센티미터나 커졌는데 이상하게도 걸음걸이가 어색했어. ... 하이힐을 신고 가다 무작정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삼선 슬리퍼를 샀어. 하이힐은 쓰레기통에 바로 버렸지. ... 굽이 높은 구두를 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 이제 무조건 편한 신발만 신어. 그런데 하이힐을 안 신기 시작하니까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지더라. ‘옷은 예쁘게 입어놓고 신발은 왜 그래?’”

소설가의 황유미 소설집 『피구왕 서영』 중

쿠투운동이 있다. 2019년 일본의 여성 복장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사회운동으로 구두를 뜻하는 일본어 ‘쿠츠(靴)’, 고통을 의미하는 ‘쿠츠우(苦痛)’에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Too’를 합친 신조어다.

“직장 내에서 여성에게 하이힐 등의 불편한 구두 착용을 강요하지 말 것!” 메시지가 담긴 일본판 탈코르셋운동이다. 2017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기업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하이힐의 착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한국에서도 여성 노동자에게 치마와 구두를 강요하지 말라는 운동이 일어났다. 남녀 차별을 없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로 높은 굽의 구두를 벗어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한 언론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봄 시즌 여성 단화 판매량이 늘고, 하이힐의 판매량은 23%로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2018년 5월,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칸 영화제의 노-플랫스(No-Flats: 굽이 평평한 신발 금지) 규칙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하이힐을 벗어 맨발로 레드카펫을 밟았다. 당시 칸 영화제는 낮은 구두 굽을 신은 배우나 관객, 취재진 입장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단화를 신고서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쿠투운동과 이슈들은 직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회적 퍼포먼스이다. 이처럼 관계의 틈을 좁히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함께 생각하기**

**1cm** 로 시작하는 변화의 작은 발걸음

**Q. 구두 굽이 1cm 낮아지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이 하이힐을 신어야 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은 힐을 신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 또한 발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하이힐을 신고 걷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힐을 선호하고 계속 신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힐 높이의 변화는 성 역할, 패션, 편안함에 대한 더 큰 문화적, 사회적 대화의 한 측면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발걸음일 수 있다.

**Q. 동료와 마음 거리를 1cm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동료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인 작업 환경, 효과적인 팀워크 및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를 높여준다. 하나, 의사소통은 정기적으로 동료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일과 개인 생활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자. 둘, 프로젝트 공동 작업은 동료와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것은 팀워크와 상호 존중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 동료가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지원하자. 그들이 대화가 필요할 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쌓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넷,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KTR+CULTURE

회사 안팎의 다양한 문화교양 정보를 전하는 섹션입니다.  
때론 상식을, 때론 힐링을 선물하는 공간입니다.



**40**

마음 처방전  
모욕을 견디지 않으면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법

**44**

이상한 과학실  
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좋을까?

**46**

일상 속의 여유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깝게 마음 편히 쉬기

## 모욕을 견디지 않으면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법



가까운 사람(가족·친구·애인·동료 등)과 다툼이 잦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관계 회복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태도는 관계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노력과 인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태도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지혜롭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한다.



### MIND PRESCRIPTION

마음 처방, 하나  
시인 조은윤의 시집 『햇볕 피기』

“언 땅 위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골몰”하다가 발견하는 ‘중심 잡기’의 방식을 시인은 보여줍니다. “헛디디게 되더라도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 시인은 “열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부축해주는 현대의 주체가 되어갑니다. 시인 조은윤의 첫 시집 『햇볕 피기』(창비, 2022)에는 “매일 빠짐없이 햇볕 피기”를 시도하며 지나칠 정도로 근면 성실한 우리들의 자화상이 녹아 있습니다. “햇볕 피기”는 다른 존재를 위한 “햇볕 되기”로서 참담한 현실에서도 존재의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구도의 행위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슬픔을 주었구나. 나는 슬픔을 어르는 손길을 줄게”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 이해하고 배려하는 척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지는 말아야겠지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시를 읽으세요. 시를 통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 MIND PRESCRIPTION

마음 처방, 둘  
평론가 신형철의 에세이 『인생의 역사』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는 평론가 신형철은 『인생의 역사 - 공무도하가에서 사랑의 발명까지』(난다, 2022)에서 우리 곁의 시를 스스로의 삶으로 겪고 읽어 내려가면서 대단하고 특별한 순간을 몇 번이고 만들어냅니다. 이 책엔 수많은 명시가 실려 있지만, 저는 최승자, 한강, 메리 울리버, 로버트 프루스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작품을 감상한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괴로움만 주는 ‘사랑에 관하여’ ‘착함과 죽음’의 굴레에 관하여, 놓쳐버린 ‘가지 않은 길’에 관하여 다시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껴안으면 바스라질 뻔인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를 살며시 어루만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자세일 것이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MIND PRESCRIPTION

마음 처방, 셋

소설가 김지연의 소설집 『마음에 없는 소리』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은 삶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고 거기엔 아주 많은 공을 들여야만 합니다. 때늦게 타인의 혐담을 알게 된 사람, 공무원 시험공부도 해보았지만, 지금은 이룬 게 없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종종 실수하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은 조선소 문화에 적응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듣거나, '어릴 때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미움만 받았던 기억'을 지니고 있는 사람 등 "그런 게 삶인가? 모욕을 견디는 것..."이라고 자문하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신에 작가 김지연의 첫 소설집 『마음에 없는 소리』(문학동네, 2022)입니다. 이 소설집은 실험적이거나 작위적이지 않게 자신 안에 아주 많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그리며 누군가를 되새기거나 지난날을 곱씹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세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고향을 찾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식의 말을 나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번의 드라이브는 내게 평안 비슷한 것을 주었다. 내게도 고향의 어떤 점들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는 걸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굴 드라이브」 "상대에게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면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본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는 것이 오랜 정설이니까 그 행위를 해냄으로써 나를 변호하는 것이다." 「작정기」 등 공감할만한 문장이 수북한 소설집에서 우리는 자신의 좌표가 어디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어집니다. 삶에 대한 문근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가 건네는 위로가 인상적입니다.

MIND PRESCRIPTION

마음 처방, 넷

기자 김지수의 인터뷰집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얇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의 고통은 별개라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쳐진 얇은 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지.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 '인터스텔라' 김지수의 '라스트 인터뷰』 (열림원, 2021)의 120쪽에 실린 문장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책은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스승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이며, 남아 있는 세대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진솔하고 지혜로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밑줄 그으며 읽은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 있다"에서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를 지나 "누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가장 슬픈 것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에 다다른 과정에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고쳐 쓸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나는 평생 도전이 필요한 인간이었네. 계속 쓰고 또 쓰고 다시 썼네. 강해서 아니라 약해서 다시 하는 거라네. 니체도 다르지 않아. '운명이어 오너라! 위인들이 거창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아.'"

책 속에서

EDITOR TIP 관계 회복에 좋은 대중문화

영화

해피 해피 브레드

릴링 ★★★★★

감독 미시마 유키코

출연 히라다 토모요, 오오이즈미 요, 히라오카 유타 등

빵을 통해 카페 마니의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은 견뎌낸 횡수만큼 행복해진다. 행복 레시피가 필요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감빵뉴 대령입니다!"



연극

비누향기

감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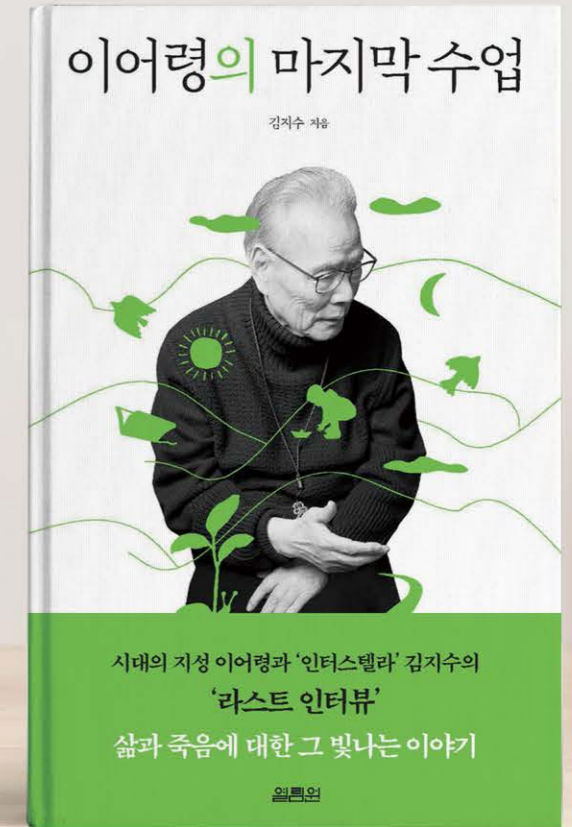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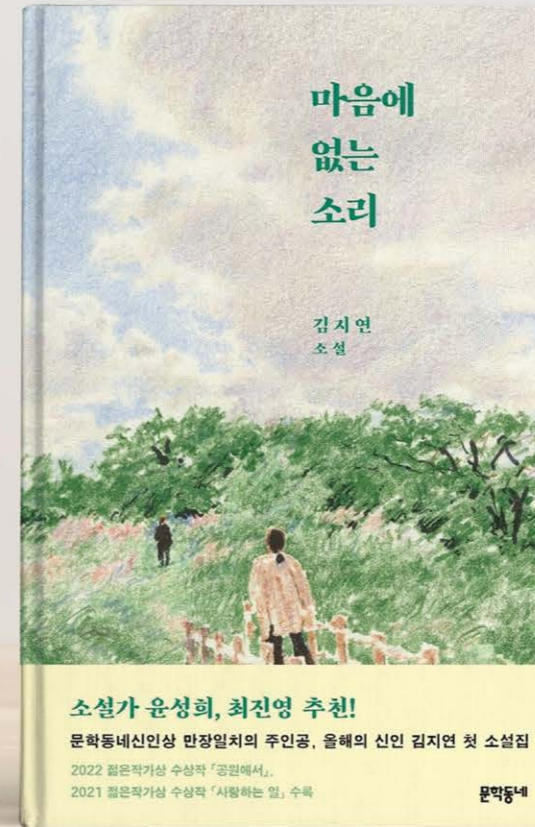
연출-극본 노푸름

출연 서호영, 노푸름, 이진호, 차수영 등

공연일정 화-금: 4시 / 토: 3시, 5시 20분 / 일: 4시 20분

공연장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8-9 서연아트홀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타임슬립 추억여행.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고 나서 쓰는 대본마다 퇴짜를 맞아 힘들어하는 작가. 사고가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해 그 이후 아버지와 관계도 서먹해졌는데...



KTR 가족에게 전하는 북 큐레이터의 한 마디

이번 독서가 어떤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보기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기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가능성. 봄이 멀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이 불가해한 생을 좀 덜 외롭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숯불! 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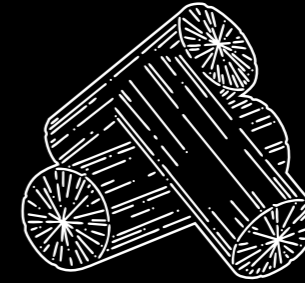
숯불구이가 좋은 것은 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리방식이라는 것이다. 불을 피울 때 불씨에서 불이 옮겨붙는 숯을 벗이라고 한다. 늘 가까이에서 마음 따뜻하게 열정을 되살려주는 오랜 친구와 같은 숯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동료들과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어떨까?



# charcoal fire

### 숯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숯은 쉽게 말해, 반쯤 탄 나무다. 장작보다 뜨겁고 깨끗하면서도 덜 연기가 나며, 더 천천히 타기 때문에 숯을 사용한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중국과 아시아에서 숯을 만들어 왔다. 숯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쌓고 축축한 흙으로 덮은 다음, 나무에 불을 붙여 산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천천히 태우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최고의 숯은 참나무나 너도밤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를 태울 때 얻을 수 있다.



### 숯은 또 어느 분야에서 이용되었을까?

예술가들은 목탄을 연필처럼 값싼 그림과 필기구로 사용했다. 이집트 예술가들은 목탄을 사용하여 벽화용 검은색 페인트를 만들었다. 작가들은 숯가루를 물과 섞어 잉크를 만들었다. 의사들은 독극물과 약취를 흡수하는 약으로 활성탄(매우 굵게 간 숯)을 제공했고, 선원들은 식수를 여과하기 위해 까망게 탄 물통을 사용했다.



고대 이집트 벽화 \_ 검은색 부분을 숯과 그늘음으로 표현.

### 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좋을까?

“숯불구이는 베이컨 같은 풍미를 주는 화합물인 구아이아콜(Guaiacol)을 방출합니다. 숯불에 고기를 굽는 것은 즐거운 오락이기 때문에 더 맛이 좋죠.”  
요리사 테드 휴즈

#### ● 맛이 있는 고기란?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다. 즉, 고기를 구울 때 육즙 감소량이 적어야 맛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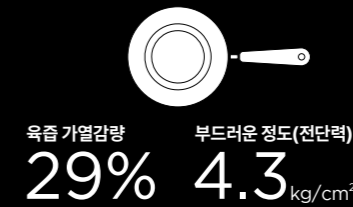
#### ● 숯불구이가 맛이 좋은 이유는?

숯불이 육즙 감소량이 적은 것은 숯불에서 나오는 복사열 때문이다. 복사열은 열을 구석까지 전달하고 고기 겉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육즙을 가두는 역할을 해, 고기의 겉과 속을 골고루 익게 한다. 또한 숯불의 훈제 향은 양념장과 향신료의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해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해준다. “복사열은 햇빛처럼 중간 매개체 없이 열이 고기에 직접 투과되지만, 프라이팬이나 돌판은 고기와 접촉을 통해 열이 전달됩니다. 이 전도열은 고기 내부로의 열전달이 늦어 굽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겉은 타고 속은 잘 안 익어 온도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고기가 질겨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김학재 기자

### 조리법에 따른 안심 우육 품질특성 비교



### 프라이팬



### 돌판



\*가열감량 : 분석하려는 시료가 높은 온도로 가열될 때 줄어드는 질량. 가열감량이 낮을수록 질이 좋은 고기로 판단한다.

\*전단력 : 전단력은 고기를 절단하는 데 필요한 힘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연하다.  
출처 : KBS-식품연구원



이제, 동료들과 함께 요리를 즐겁게 즐기자  
동료들과 요리하는 것은 맛과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동료들과 요리 즐겁게 즐기는 팁을 소개한다.

- 1 — 사전 계획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자.
- 2 — 레시피 선택  
따라하기 쉽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선택하자. 새로운 레시피를 함께 시도하여 즐거움을 더할 수도 있다.
- 3 — 모두 참여하기  
모든 사람이 요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자.
- 4 — 음악 틀기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험을 더 즐겁게 만들자.
- 5 — 즐겁게 함께 식사하기  
요리 과정은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자. 중요한 것은 즐겁게 놀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 가까이 좀 더 가까이

## 가깝게 마음 편히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섬은 우리를 외롭게  
하면서도 말과 행동,  
마음을 되돌아보고 다듬게  
하여 관계를 더 깊게 한다.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당신에게 여유를 되찾아줄  
가깝게 마음 편히 쉬기  
좋은 곳을 추천한다.

## PLACE 01

### 일상에 씩 뜬 감성 한마음

### 흰여울 문화마을

삶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변호인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유명한,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바다를 낀 아름다운 마을로 곳곳에 예술가들의 감성과 주민들의 호응이 한데 어우러져 일상의 미학을 보여준다. 2011년 12월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영도 주민들이 생활 속 문화를 만나게 하는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났다. 마을 명소인 흰여울길은 수채화 속을 걷는 기쁨과 바다를 보는 즐거움, 바람을 쐬는 상쾌함을 선물한다. 영도문화원에 의하면 흰여울길은 예전에 봉래산 기슭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바다로 굽이쳐 내림으로써 마치 흰눈이 내리는 듯 빠른 물살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흰여울길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흰여울문화마을 내에 있는 영화기록관은 2022년에만 3만 2,139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명소다.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촬영했던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영화 속 의상들을 입어볼 수 있다.



#### ETIQUETTE

##### 방문 시 꼭 지켜주세요

1. 골목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집을 기웃거리지 않기
2. 대중교통 이용하기
3. 일회용 컵 등 쓰레기를 주택가에 버리지 않고 가져가기

#### GUIDE

#####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주소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605-3  
문의 051-419-4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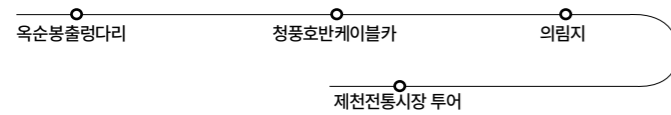
PLACE 02

바람을 거닐어  
마음을 다잡다

옥순봉  
출렁다리

희고 푸른 여러 개의 봉우리가 대나무 싹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옥순봉이 인산인해다. 2021년 10월 개장한 옥순봉 출렁다리 때문이다. 제천 수산면 옥순대교 남단과 옥순봉을 잇는 출렁다리의 길이는 222m에 다다른다. 청풍호반 수면 위에서 제천 10경 중 하나인 옥순봉을 가장 가까이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옥순봉 출렁다리는 2021년 10월 22일 개장하였으며, 길이 222m, 너비 1.5m의 연결다리 및 408m 길이의 생태탐방 데크로드와 야자매트로 이루어진 트래킹길까지 더하여 호반과 옥순봉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대한민국 명승 제48호이자, 제천 10경 중 제8경 옥순봉의 수려하고 힘찬 봉우리의 자태를 옥순봉 출렁다리에 서 온몸으로 느껴보자.

TRAVEL  
여행 추천 코스 - 옥순봉 코스



GUIDE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주소 충북 제천시 수산면 과곡리 75-7  
문의 043-641-6738



휴장일

추석, 설날,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첫 번째 평일 휴장)

운영제한

기상특보(호우, 태풍, 강풍) 발효 시, 적설량 1cm 이상, 가시거리 100m 미만

기간	시간	입장마감
3월~10월	9:00~18:00	17:20
11월~2월	10:00~17:00	16:20

PLACE 03

100분의 동행,  
100분 그 이상의

일체감 전시체험  
어둠속의대화

<어둠속의대화>는 시각을 제외한 몸의 감각과 흰지팡이, 로드마스터(Roadmaster)와 친구, 동료가 서로 의지해 100분간 어둠을 체험하면서 서로 가깝게 다가가는 전시체험이다. 1988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어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천만 명 이상이 찾았다. 한국에는 2007년 처음 선보였다.

‘어둠=연음’, ‘일상의 재발견’, ‘진정한 일체감’

“다섯 걸음만 앞으로 가세요”, “만져보세요”, “무엇인 것 같나요?”, “동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지팡이로 바닥을 쳐 보세요”, “무엇이 들리나요?”, “어떤 맛인가요?” 안내자 로드마스터의 음성에 따라 일행 혹은 처음 만난 타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한 타임에 최대 8명이 어둠 속을 걷는다. 벌써 100분이 지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남녀노소 재미있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지만 두려움 없이 전시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였기 때문이라는 로드마스터의 말은 나와 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어둠을 걷다

로드마스터 조정화는 어둠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한다. 누구라도 일행이 되고 또 타인이 되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자신의 음성엔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과는 다른 존재라고만 느끼던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온기를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로드마스터 조정화는 귀뚱한다. 동료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어둠 속을 헤쳐 나가보자는 것은 어떨까? 어둠을 함께 지나온 순간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입장 가능 나이는 8세 이상 70세 이하이다. 컨디션 난조, 음주자, 폐소공포증, 외국인, 장애인분들은 안전문제로 상황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기도 한다.



GUIDE

**서울 북촌 체험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1(가회동)  
문의 1877-6145



**경기 동탄 체험장**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60(오산동)  
롯데백화점 7층  
문의 1877-6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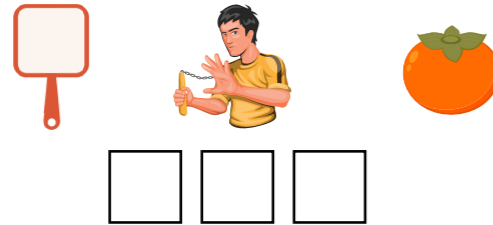
# QUIZ

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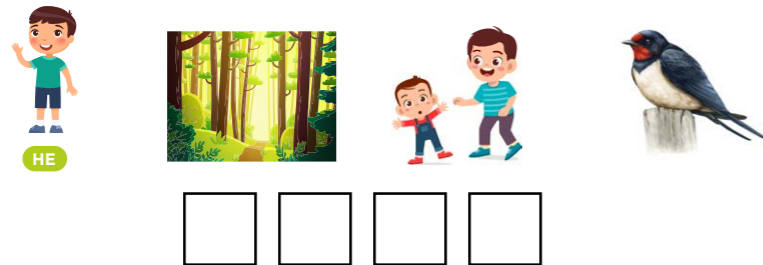
## KTR&U 연상퀴즈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나요? 그 기분을 더욱 흥겹게 할 연상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정답을 이름, 연락처와 함께 [sunnypark@ktr.or.kr](mailto:sunnypark@ktr.or.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열 분께 '요기요 3만 원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4월 7일까지

**Q1.** 인생 네 컷 이벤트 슬로건은 '0mm, 000 없이 우리(Us)'입니다. 000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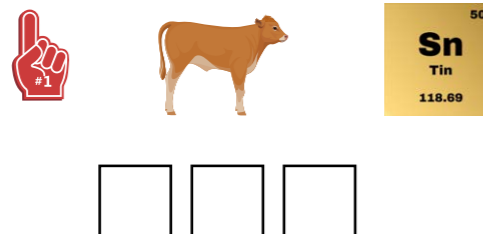
**Q2.** 민서, 하준, 하율이가 같이 만든 오디오북 '늑대와 일곱 마리 새끼 염소'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Q3.** 최지선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을 '바다 위에 00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000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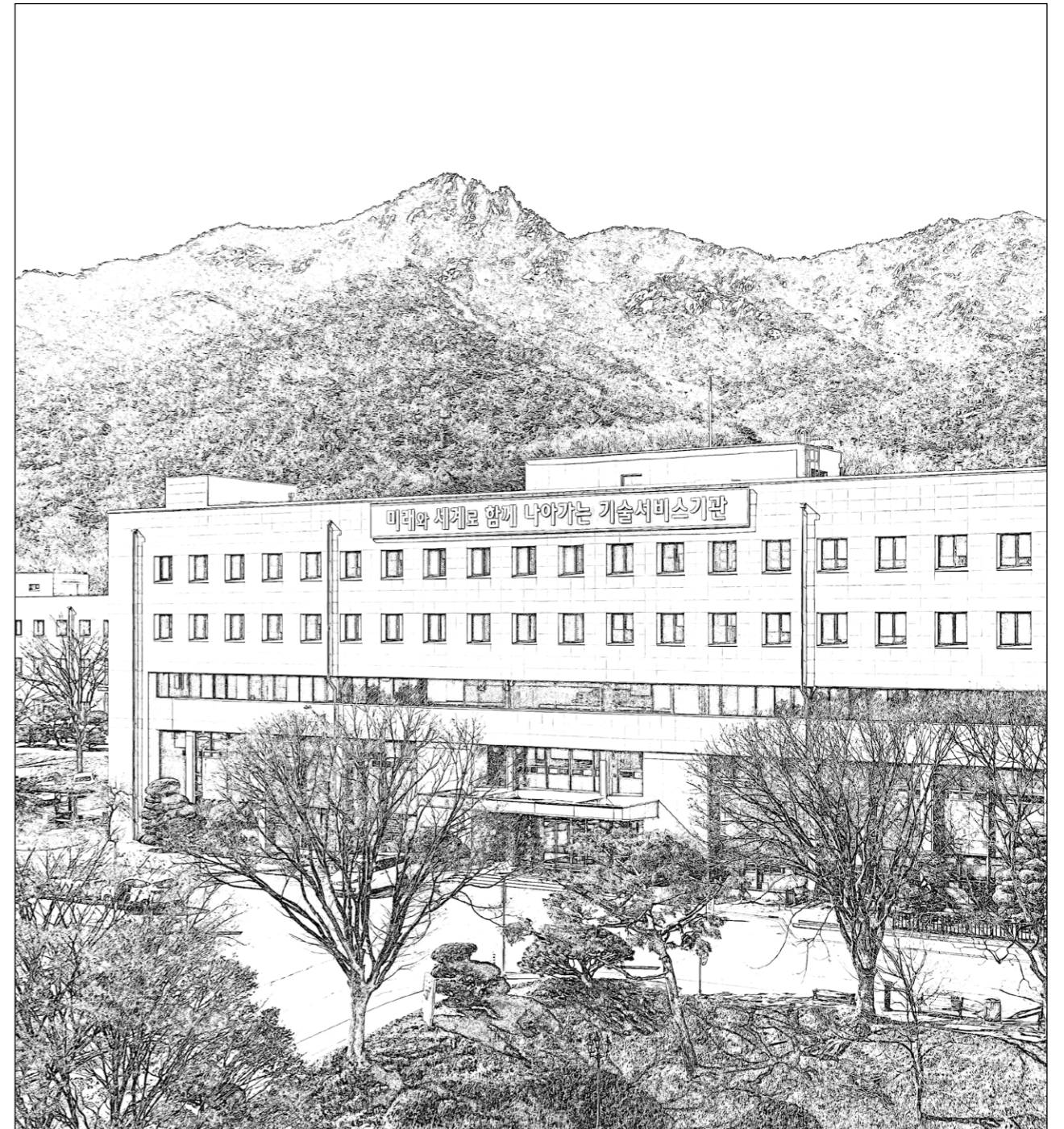
**Q4.** KTR 충북센터에서 일일마술사로 나선 책임연구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colouring

나만의 컬러링

KTR의 봄 전경을 자유롭게 색칠해 보세요!



KTR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KTR의 전경을 여러분만의 개성으로 일체감이 풍요롭게 느껴지도록 색칠해 사진을 찍어 이름, 연락처와 함께 [sunnypark@ktr.or.kr](mailto:sunnypark@ktr.or.kr)로 보내주세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께는 교촌치킨 허니콤버와 레드콤보웨지감자세트를 드리고, 작품은 여름호에 소개합니다.

응모 기간: 4월 21일까지